

화순군, 지역 생활인구 늘리기 '총력'

올해 1분기 31만6000명 기록
주민등록 인구 5.2배 집계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
소멸대응기금 등 정책 발굴

화순군의 올 1분기 생활인구가 군 주민등록인구의 5.2배인 31만 6506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교통·관광 등 정책을 적극 발굴해 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일 통계

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89개 전체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 다.

해당 발표에서 올 1분기 화순군 평균 구례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44만 9206명)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 또한 축제가 개최되었던 2024년 2분기

합쳐 31만6506명으로 집계됐다.

화순군 체류인구는 군 주민등록인구의 약 4배 규모인 25만4446명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류인구수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6만 명 규모의 고흥, 해남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화순군은 6만~8만 명의 체류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에서는 지역축제가 열렸던 3월 구례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44만 9206명)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 또한 축제가 개최되었던 2024년 2분기

화순군 체류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류인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생활인구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 정책 발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한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논의 함평군, 청년 간담회 개최

함평군이 지난 8일 함평축협 대회의실에서 청년 한우 축산인들과 한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함평군이 청년 축산인들과 함께 지역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후계 축산 경영인 20명이 참석, 한우 농가 경영 진단과 사료 개선 비용절감 등 한우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농가들은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내 고품질 사료 생산 △이력제 관리를 통한 혈통 구축 △미경산우 비육 프로그램 마련 △거세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발효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양겨 지원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주기적으로 축산농가와 소통·공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폭염 대응 활동 화순소방서 의용소방대

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 화순읍여성 의용소방대(대장 주순자)는 지난 8일부터 회원 30여명이 1일 5명씩 교대로 '폭염대비 의용소방대 대응활동'을 시작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농가들을 찾아 생수를 전하며 폭염대비 귀가 독려를 당부하는 등 폭염 대응방법을 교육했다

주순자 대장은 "이번 활동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의용소방대 "마을안전지킴이"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소방서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발일을 하고 있는 주민에게 얼음물을 전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8일부터 폭염 대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논콩 재배단지 맞춤 현장 교육 함평군, 배수관리 방법 등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일 논콩 재배단지에서 콩 재배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12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략작물 콩 직불사업 및 쌀 적정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국립식량과학원 콩 전문가인 정건호 연구사와 이승규 지도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정 연구사와 이 지도사는 콩 종자 선정의 중요성부터 콩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비, 농약살포, 배수관리 방법, 수확 및 건조에 이르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함평군은 콩 재배 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참여 농가 및 콩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건호 연구사는 "현재 콩은 수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므로 적절한 관수 처리가 중요하다"며 "콩 꼬투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노린재 등 병해충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각적인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콩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광군, 2024 상반기 친절공무원 선정

고객중심 민원처리 평가 등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8일 2024년 상반기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불갑면 서화성 주무관, 정지영 주민복지팀장, 군서면 최민규 산업개발팀장에게 친절공무원상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친절공무원 3명은 주민과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민접촉도와 고객중심 민원처리, 친절한 민원응대, 직장동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신혼부부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와 신혼여행을 일정대로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운 경우 △마을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문제를 내 일처럼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의 불편을 해결한 경우 △하천이 범람하자 직접 양수기를



영광군은 지난 8일 상반기 친절공무원 3명을 선정해 친절공무원상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영광군 제공

돌려 마을 침수 위기를 넘긴 경우 등으로 주민의 칭찬을 받았다.

위 직원들은 평소에도 성실하고 친절 한 자세로 동료 직원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

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칭찬과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친절공무원인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간 240만원

곡성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세 비용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입 월세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4년 곡성군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무주택 근로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해 지역 내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 1년 이상 거주자,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80% 이하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월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그동안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농공단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전입 근로자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화순군, 8개 업체 17개 품목

화순군은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화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답례품 추가 선정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제1차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업체 및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농·축수산물(백미쌀, 현미쌀, 잡곡세트, 민물장어) △공(예)산품(운주사 석고방향제, 석고방향제 체험키트) △가공식품(백설기, 가래떡, 인절미, 떡선물세트, 꾸지뽕 된장·간장, 꾸지뽕진액, 수제두유, 유산균 발효유, 요구르트세트, 장어탕) △관광·체험서비스(운주사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로 8개 업체 17개 품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오는 21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기부자 1명당 분기별 2회)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가 허용된다.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1인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기부금 모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화순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